

핵심역량 기반 프로젝트형 학습을 위한 독일어 수업모델 연구

박현선
(한국교원대학교)

Park, Hyun-Sun. (2017). Eine Studie über die deutschen Unterrichtsmodelle für die Projektmethode in Bezug auf die Schlüsselkompetenzen für lebenslanges Lernen. *Foreig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21, 93-115.

In der vorliegenden Arbeit wird versucht, welche Unterrichtsformen im Deutschunterricht für die Zusammenarbeit besonders in Bezug auf die Schlüsselkompetenzen für lebenslanges Lernen relevant sind. Der Fremdsprachenunterricht wurde entsprechend den Bedürfnissen oder den Anforderungen der Gesellschaft entwickelt. Heutzutage sind Projektunterricht gute Lehrmethoden zur Problemlösung. Die Projektmethode ist wahrscheinlich die Unterrichtsmethode, die sich vor allem auf die Selbständigkeit und Eigenverantwortung der Studierenden konzentriert. Projektarbeit ist das selbständige Bearbeiten einer Aufgabe oder eines Problems durch eine Gruppe. Das Projekt reicht von der Planung über die Durchführung bis zur Realisierung und Präsentation des Ergebnisses. In diesem Artikel präsentieren wir den Prozess und die Ergebnisse des aktuellen Projektunterrichts im Deutsch als Fremdsprache. Projektunterricht eignet sich sehr gut, um die Problemlösungsfähigkeiten der Schüler zu verbessern. Der Lehrer ist nur der Helfer dieses Projektunterrichts. Im Verlauf dieses Projekts können die Schüler selbständig lernen und sich selbst reflektieren.

Key Words: Projektunterricht, Projektarbeit, Deutsch als Fremdsprache, Kompetenzen für lebenslanges Lernen

I. 연구의 목적 및 방향

외국어교육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다. 최근 교육과정은 핵심역량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핵심역량은 4 차 산업혁명에 따른 시대 변화와 사회 요구와 맞물려 더 그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전통적인 교실에서의 교사가 주도하는 교육방법을 벗어나 교실 밖으로 교육 현장이 옮겨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사회 경향에 따라 교육의 현장에서는 학생중심, 과정중심, 참여식 수업,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수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 관심은 특히 ‘핵심역량’ 교육과 함께 우리나라 모든 교과목에 새로운 교육 목표 설정과 교수법에 대한 변화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2 년부터 핵심역량에 따른 교육정책과 교육과정을 연구하면서 우리 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이 길러야

하는 미래 핵심역량은 무엇인지를 선별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근호 외(2013)는 이 연구를 통해 다양한 현상이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습자에게 필요한 핵심역량은 무엇인지 여러 국가의 핵심역량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강조해야 할 지식, 기능, 태도의 총체인 핵심역량을 제시했다.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정보처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자기관리능력’, ‘기초학습능력’, ‘시민의식’, ‘국제사회 문화이해’, ‘진로개발능력’ 등의 10 가지 항목이 그것이다. 2015년에는 이를 더욱 구체화하여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교수학습 및 교육평가 전반에 걸친 연구 및 수업활동에 대한 연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참조.박현선, 2016). 이러한 핵심역량을 반영하고, 나아가 다양한 현상이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업을 수업에서 다루기 위해서는 수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

제 2 외국어 교수법의 역사를 살펴보면, 시대에요구에 따라 교육목표가 설정되고, 그 교육목표를 성공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특정 교수법이 활용되어 사회에서 필요한 외국어 교육을 실행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제 2 외국어 수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함을 전제하는 과정으로써 시대변화에 따른 교수방법의 목적 및 특징들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과연 오늘날 시대변화를 반영하는 수업 방법은 무엇일지를 고민하면서, 특히 다양한 핵심역량 요소들을 두루 반영할 수 있는 수업 방법으로 탐색형 프로젝트 수업과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수업에 초점을 맞춰 협동수업의 필요성과 진행방식을 다뤄볼 것이다. 나아가 실제 독일어 수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프로젝트 수업의 예를 제시해 보겠다.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수업은 한계에 이르렀고, 급변하는 사회를 대비하며 학생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수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교수자들의 고민이 매우 깊다. 학습자들은 문제해결을 위해 정보처리 능력, 기초학습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이 과정을 수행하면서 창의력,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및 자기관리능력을 길러 팀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은 결국 국제사회 문화 이해력을 키우고, 시민의식 및 나아가 세계시민 한 사람으로써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가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반영한 것이 바로 ‘프로젝트형 수업’이다. 프로젝트형 수업은 학생이 중심이 되고, 과정이 수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며, 개인의 역량 보다는 함께 과정을 이끌어가는 팀원들과의 협업을 통해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는 진행상의 특성때문에 21 세기에 외국어 교육이 전환해 나아가야 할 수업 방향 중 하나이다. 따라서 독일어 학습에서 프로젝트형 수업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그 운영방식과 의의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시대에요구에 따른 독일어교수법 패러다임의 변화

독일의 경우 학교 교육에서는 잘 가르치지 않지만, 독일 국민의 휴가 관습 때문에 스페인어와 이탈리아어 등은 시민대학에서 개설하는 성인을 위한 어학 코스에서 인기가 있다. 한국의 경우는 휴가를 이유로 특정 언어가 인기를 끌지는 않는다. 오히려 국제 사회에 경쟁력있는 언어 또는 경제적 성장에 필요한 언어와 같이 매우 실리적인 이유에서 외국어의 인기가 형성된다. 외국어 학습 동기는 시대요구, 사회 문화적 특성 및 학습자 필요에 따라 매우 목적적으로 설정될 수 있다. 외국어 학습의 목표 수행은 때로는 문법 수업일 수 있고, 때로는 회화중심의 수업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외국어를 배우는 학습자의 목적에 따라 외국어 수업의 유형은 달라진다.

독일의 언어 교육은 1950 년대의 문법번역 수업을 보더라도 ‘시대요구’와 ‘학습자’ 중심에 매우 일찍 관심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독일의 언어 교육에서 매우 독특한 점은 독일에 들어온 이민자들과 체류자들의 독일어 교육에 국가가 정책적으로 관여하여 외국어 교육을 했다는 것이다. 그 당시 시대의 요구와 학습자인 외국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맞춰 독일어 수업이 진행되고, 이를 위한 교재를 개발하여 언어교육을 지원했다. 따라서 방법론의 변천은 1945 년 이후 크게 3 대에 걸쳐 교과서에 반영되었고, 이 때문에 독일 자국뿐만 아니라, 제 2 외국어로서 독일어를 배우는 타국의 언어 수업에도 독일에서 개발된 교재는 모범이 되었다. 독일어 교수법의 역사적 흐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해당 교수법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중심으로 그리고 어떻게 수업을 운영하는지 등의 방법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소개 관점을 ‘시대의 요구와 학습자의 필요성’에 따라 외국어 교육의 목표가 어떻게 설정되었으며,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시대요구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춰 그 특징들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오늘날 시대요구에 맞춘 외국어 수업의 과제는 무엇이며, 제 2 외국어를 배우는 한국의 독일어 수업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맞는 21 세기 외국어 수업 유형을 모색하는 시도를 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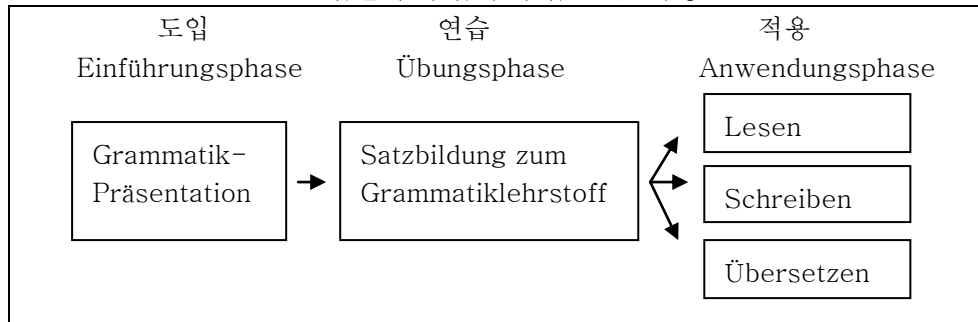
1. 전통방식의 문법번역 교수법의 교육목표와 수업 운영의 특징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어 교수법에서 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기본을 이루는 것은 문법번역식 교수법이다. 당시 시대요구와 사회적 필요의 측면에서 외국어 교육 경향을 살펴보면, 전후 1950 년대 신인문주의 영향으로 외국어 교육은 인간형성 교육에 의존하였다. 제 2 외국어가 공급되는 대상은 당시 김나지움의 현대 언어수업, 프랑스와 영어 수업 중심이었고, 당시 김나지움의 수업 목표는 일반 정신교육이었다. 정신 형성을 위해서는 논리와 체계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언어교육은 특히

글자로 표현된 문학 중심이 되었다. 김나지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격 형성을 위한 수업이 뜻하는 것은 특정 계층에게만 외국어 수업이 행해졌다는 것과 교육 엘리트 집단을 위한 외국 문학의 수용에 수업 목표를 두고 그에 적합한 수업 방법을 모색했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요구가 반영된 교수법으로 널리 알려진 보편화된 교수법은 문법번역 방식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교수법의 핵심 개념은 ‘문법’과 ‘번역’이다. 문법을 잘 아는 사람이 외국어를 잘 아는 사람이고, 이 목표의 최종 수행 행위가 바로 번역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번역은 외국어 교육의 활용 목표가 되었다.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이 외국어를 실제적으로 잘 하는 사람이라는 기준이 생긴 것이다(Vgl. Neuner:1993). 문법이 가장 중요한 학습재료가 되는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활용으로 번역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교수목표아래 수업 유형은 전형적으로 교사중심 수업으로 진행되었다. 문법번역 수업의 가장 일반적인 수업유형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Vgl. Neuner: 1993. S. 21).

그림 1
문법번역 수업의 수업 진행 과정



이 문법번역 수업의 학습자는 나이 및 학습조건이 비슷한 또래집단이며, 김나지움의 교육을 받고 있는 상류 엘리트층으로 매우 권위적인 교사 주도적 수업 진행을 받고 있으며, 문법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그 체계를 어려운 텍스트에 적용해 보는 수업 방식에 익숙한 학습자 그룹이다. 따라서 교사는 도입 과정에서 문법을 제시하고, 연습 단계에서는 그 문법의 내용이 인위적으로 충실히 들어있는 ‘문장’ 단위의 텍스트를 많이 풀어보게 하였다. 이 연습 단계의 특징은 특정 문법 사항이 들어가 있는 문장을 외국어로 옮겨 적는 연습으로 구상된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Neuner: 1993. S. 23).:

- (1) He came home about seven o'clock after he had gone right round the town.
- (2) They all sat round the long table till o'clock.

이 연습문제는 round 전치사를 바르게 번역하여 쓰임을 익히는 연습이다. 특정 목적에 맞게 인위적으로 제공된 외국어 문장을 독일어로 옮겨야 한다.

(1') Er kam etwa um sieben Uhr heim, nachher er durch die ganze Stadt gegangen war.

(2') Sie saßen alle um den langen Tisch bis neun Uhr.

번역 연습은 비교적 긴 문장들로 구성된 모국어 텍스트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순행번역 연습이 제공되기도 한다. 이러한 연습 유형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연속된 텍스트를 선택하여 내용 서술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는 모국어 텍스트를 소재로 제공하며, 번역 시 주의해야 할 문법 사항이나 참고 내용에 대해 각주를 제공하는 교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모국어를 외국어로 옮기는 연습을 오늘날의 수업에서는 구어 중심으로 구현되는 것에 반하여, 문법번역 교수법에서는 문장 단위의 '텍스트'로 연습하였다는 점이 이 시대의 외국어 교육목표가 분명 '문학'작품을 '읽기' 위한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눈 여겨 봐야 할 점은 문법번역식 수업의 진행 방식이다. 문법을 강조하여 어떤 문법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옳은지 문법 현상 그 자체의 옮고 그름을 제어 보는 형식의 연습이 아니다. 비록 인위적인 문장이라 할지라도, 그 문법 현상이 들어가 있는 문장의 의미와 쓰임을 배제하지 않았다. 적용단계에서도 형식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배우려는 문법 요소가 어떻게 쓰이는지 문장에서의 쓰임에 대해 문장 이상의 단위로 꾸준히 연습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찾아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문법번역식 교수법의 특징으로 눈에 띄는 점은 모국어와 외국어와의 학습방향 관계이다. 현재 우리의 교사주도형 문법 위주 외국어 수업의 진행 방식을 들여다 보면, 외국어 텍스트를 우리말로 옮기는 것을 '독해'라고 하고, 우리말을 외국어로 옮기는 것을 '작문'이라 구분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독일어 텍스트를 우리말로 이해하는 독해 중심의 수업은 보편적으로 저학년 수업에도 공급되지만, 우리말을 독일어로 옮기는 작문 수업에 대해서는 학습의 난이도를 더 높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오히려 이 당시의 문법번역 교수법에서는 두 가지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오히려 자신의 모국어를 외국어로 옮기는 번역 기술(작문)이 외국어를 모국어로 옮기는 번역 기술(독해) 보다 더 먼저 연습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이 모국어를 외국어로 옮기는 기술을 선행번역이라고 부르고, 외국어를 모국어로 옮기는 기술을 역행번역이라고 부른 용어에서도 글 옮김의 방향이 외국어가 모국어로 이해되어 수용되는 것이 더 어려운 과제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문법번역식 수업의 최종 상위 목표가 외국 문학 작품을 모국어로 읽고 옮겨 적을 수 있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목표 수행을 위해 자신 모국어를 외국어로

옮기는 개별 문장 연습을 거친 후, 화자가 모국어로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적어 그것을 외국어로 표현할 수 있게 한다. 점차 독일 산문을 발췌하여 읽으면서, 이 외국어 작품을 역행하여 자신의 모국어로 옮기는 연습으로 진행되는 학습의 순서가 매우 특징적이다. 문법을 배우면서 내 스스로의 생각을 해당 외국어로 표현하게 한 다음, 최종적으로 외국어를 학습자의 모국어로 옮겨 자신의 정신 및 인격 도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외국어 적용 능력을 기른다는 것이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어떤 교육목표를 설정했느냐에 따라서 수업의 진행방식과 연습 유형은 크게 달라진다.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고 학습자들의 인격 도야 및 정신 교양의 고취를 목표로 했던 전후 외국어 교육은, 라틴어를 교육시키듯, 문자 중심의 교육법을 취하였고, 외국어로 쓰인 최고의 문학 작품을 모국어의 의미로 이해하고 쓸 수 있도록 수업은 구상되었다. 그러나 외국 문학 작품을 읽고 인격을 형성하자는 시대의 요구는 점차 부정적 시각 속에 놓이게 되었고, 살아있는 언어를 글자 중심의 죽은 언어 교육법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센 비판에 따라 새로운 외국어 교육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2. 실용주의 기반 독일어교수법의 교육목표와 수업 운영의 특징

70 년대에 들어오면서 외국어 교수법에 개혁이라는 단어의 등장과 함께 들어온 개념은 ‘직접 direct’이다. 지금까지 수행되었던 경직된 문법에서 벗어나 구어 중심이 강조되는, 능동적인 외국어 수업으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직접방법은 라이트 Raith(1967)가 영어수업에 대한 연구에서 Wilhelm Viëtor 의 ‘Der Sprachunterricht muß umkehren 언어수업은 바뀌어야만 한다’란 책을 소개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Vgl. Neuner: 1993. S. 33). 그는 끊임없이 능동적인 구두 언어숙달(die aktive mündliche Sprachbeherrschung)을 강조하였다. 이와 맞물려 언어학에서도 음성학 분야는 구어와 문어의 차이를 지적하기 시작하였고, 심리학 측면에서도 형식적인 교육원칙의 필요성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는 새로운 시대요구를 야기했고, 반면에 수업이란 학생들에게 학습소재를 가득 채워주는 것(Auffüllen)이라는 부담을 벗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하였다(Vgl. Neuner: 1993. S. 33).

구어 중심이라는 새로운 방향 전환은 구어체 일상어에 초점을 맞추게 하였고, 이 초점은 배우고자 하는 외국어 국가의 ‘일상생활’이 중요 학습소재로 떠오르게 하였다. 또래 집단이 직접 체험하는 경험 세계와 동일한 것을 외국어 수업에서 다루게 되었고, 따라서 가족이나 생활 및 일상 주제가 중요한 학습 내용으로 등장하였다. 이로써 문법번역식 외국어 교육에서 등장했던 ‘문법’이라는 용어와 ‘고상한(höher) 교육’과 같은

수식어는 완전히 빠지게 되었다. 대신에 언어학습은 언어 본보기(Muster)가 중요해졌고, ‘모방’하는 것이 강조되었다(Vgl. Neuner: 1993. S. 32). 이러한 수업으로 구청각 및 시청각 교수방법이 언어 수업의 핵심 교수법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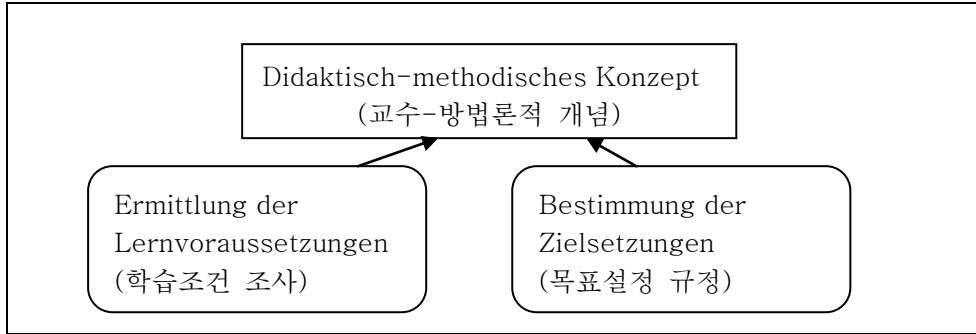
특히 독일의 상황에서는 이 시대에 김나지움 이외에 외국어 학습의 새로운 목표그룹이 생겼다는 점이 중요하다. 김나지움 학생들에게만 공급되었던 외국어 수업이 하우스프트슐레의 교과목으로 도입되었고, 동시에 학교 밖 교육영역에서도 성인 중심의 시민대학 교육을 통해 외국어 학습자가 급속히 증가하여 외국어 수업이 그들에게도 도입되어야만 했다. 외국어 학습 집단이 김나지움 학생, 하우스프트 슐레 학생, 성인, 직업교육 참여자로 확대되면서 김나지움의 엘리트 학생에게만 초점을 맞추었던 전통 수업 방식은 더 이상 적합한 언어 교수법이 되지 못했다. 외국어 수업을 배우는 새로운 목표 집단의 출현은 목표설정과 수업방법에서 새로운 전환의 필요성을 야기했고, 이는 외국어 교수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새로운 목표집단에 맞춰 외국어 교육은 실용적 관점과 교육적 관점에서 설계되었다. 특히 외국어 수업의 목표설정과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실용언어학의 등장이다. 이는 문법번역방식의 수업과 다른 방향의 교육임과 동시에 구청각 및 시청각 교육과는 또 다른 방향의 전향이기도 하다. 구청각과 시청각 교육이 일상언어를 교육의 소재로 활용한다는 점에서는 실용언어학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지만, 외국어를 행동 프로그램으로 익히게 하는 행동주의와는 다른 관점에서 학습을 전개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 실용언어학으로부터 ‘언어는 곧 화행이다’는 전제가 형성되고, 외국어 수업에 ‘의사소통 능력 kommunikative Kompetenz’이라는 포괄적인 교수목표가 실행되고, 새로운 교육과정의 규정이 마련되었다((Vgl. Neuner: 1993. S. 84-85).

이 의사소통 외국어 교수법 개발에서 중요한 점은 실용적인 교육 방침을 설정하고, 교육 목표와 수업 소재에 변화를 가져왔다는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학습집단에 따른 목표설정’과 ‘학습조건’을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여 학습자에게 의미있는 수업방법과 조건들을 마련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독일어의 경우에는 실용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지역화 Regionalisierung 에 대한 토론이 외국어로서 독일어 수업의 교수법 및 방법론에서 중심주제가 되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논의들은 외국어 수업에서 2 가지 측면, 즉 수업 목표의 실용적인 면과 학습자의 수업 전제 조건을 중요한 요인들로 더욱 강하게 부각시켰다. 노이너는 학습자 지향적인 외국어 교수 방법 개념 설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제시했다(Vgl. Neuner: 1993. S. 87).

그림 2

실용주의적 입장에서의 수업 전제 조건을 위한 중요 요인



학습조건 조사는 학습자/학습집단이 그들의 경험, 지식, 동기, 학습 전통과 같은 문화적 측면과 함께 학습 과정 속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고려하는 것이며, 목표설정 규정은 교육적 그리고 실용적 차원에서 볼 때, 외국어로 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해 학습자/학습집단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에 대해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두 단계의 구분을 거쳐 비로서 학습자 중심으로 외국어 수업의 방향은 설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실용주의의 대두로 언어학의 수업은 학습자 자신의 개성을 발전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요구를 표시하고, 때에 따라 관찰시키는 것을 동일화 표현(Identitätsdarstellung)을 통해 배우게 되거나, 자신의 역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과 다른 역할을 이행해야 하는 역할을 통해 역할 거리두기나 포기(Rollendistanz)에 대해서도 배우는 수단이 되었다. 나아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는 동감(Empathie)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Vgl. Heyd:1991. S. 43-44). 이러한 교육 이론은 외국어 수업이 단순히 해당 언어를 구어로 표현하면서 자신의 요구를 관찰시키는 것에만 교육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사회 변화에 따라 교수방법과 수업유형의 전환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단지 실용성만의 주장이 아닌, 외국어 교수법의 기본 방향을 설정할 때는 교육과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교육 원론적 상위목표의 틀 안에서 국가가 지향하는 시대요구를 담은 교과목의 일환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다.

실용언어학이 외국어 수업에 영향을 미치면서 수업유형은 화자의 전달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발화의도를 언어로 전환시키는 방법은 무엇인지, 발화기능을 담고 있는 언어 모형에 관심을 갖게 하였다. 이에 따라 언어로 말하는 모든 대화 상황은 이러한 발화행위나 발화의도가 상황에 맞게 설정된 것들이며, 그 상황에 사용 가능한 화행 모델들을 제공함으로써 발화자의 의도에 맞게 대화를 꾸려나가도록 교재가 구상되었다. 따라서 실용주의 기반

독일어 교수법에서는 ‘발화의도’, ‘역할’ 및 ‘주제’가 중요한 핵심어가 되었다. 수업에서는 역할극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고, 상황에 따라 읽기와 듣기 텍스트가 공급되면서 실용적인 텍스트 작업이 많이 행해졌다. 안내방송, 광고, 설명서, 시간표 및 처방전 등과 같은 일상을 규정하는 실용텍스트뿐만 아니라, 보고서, 그림 설명, 편지, 유인물, 독자편지, 논평 및 뉴스와 같은 제보특성을 가진 비문학 텍스트도 교과서에 등장하게 되었다.

상황에 따른 실용텍스트의 등장은 수업의 ‘사회적 형태’를 바꾸게 하였다. 전통적인 정면 수업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개별학습, 파트너 작업 또는 학습집단의 가능성과 목표설정 에 따른 집단작업의 형태로 다양하게 제공되었으며, 교사가 강의하고 학생은 지시를 받는 모습과는 달리, 학습자가 수업 운영의 전면으로 부각되는 특징을 보였다. 그러나 이처럼 학습자가 수업 요소의 중요 대상으로 부각됨에 따라 함께 제기되는 문제는 확실적인 상황 속에서 학습자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 학습자를 고려할 때, 외국어를 배우는 학습자의 출발점이 모두 다르다는 현실을 반영한다면, 과연 어떤 개선점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겼다.

3. 상호문화 기반 독일어 교수법의 교육목표와 수업 운영의 특징

고상한 교육과 특정 계층만을 위한 외국어 교육은 실용언어학의 대두 이후 다양한 계층의 학습자 집단, 다양한 텍스트 유형의 등장, 발화하는 의도를 표현하기 위한 언어모델 학습 등과 같은 방향으로 교육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 외국어는 해당 목표어와 학습자 간의 나라가 동질적이기도 하고, 매우 이질적일 수도 있다. 또는 거리감이 매우 근거리일 수도 있고, 동떨어진 지리적 영향으로 전혀 다른 문화권을 형성할 수도 있다. 학습자의 조건을 고려한다는 것에 ‘상황’이라는 개념이 추가되면서 학습자는 과연 어떤 국가의 학습자를 이야기하는지, 이제 그 학습자는 단순히 독일 내의 학습자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어를 배울 수 있는 모든 세계의 학습자, 근거리일 수도 있고, 원거리일 수도 있는, 아시아 국가일 수도 있고 또는 유럽 대륙의 국가일 수도 있는 다양한 학습자를 의미하게 되었다. 그들 모국어 국가의 조건이 매우 다양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외국어 수업이 효율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속한 모국어 국가의 문화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교육관점이 생겼다.

예를 들면 동양권에서 독일어를 배우려는 학습자와 프랑스에서 독일어를 배우려는 학습자는 학습 동기, 학습 조건, 독일 문화에 대한 이해, 학교 문화 및 교육 현실 등 매우 다양한 층위에서 차이가 있다. 여기에 그 민족에서 급기시 되거나 용납하지 않는 이국적 문화 소재는 무엇인지, 학습 내용도 민족마다 선택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이처럼 목표집단의 독특한 제도적, 고유문화적, 주관적 조건을 고려하면서 해당 국가에서 외국어로서 독일어를

배우는 학생들의 학습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필요성과 함께 80년대 후반의 독일어는 외국어 수업 속에서 ‘문화’ 요소가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국제 사회, 국제 경쟁력이라는 단어가 대두되면서,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이라는 입장에서 외국어 교육 속에서 문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커졌다.

상호문화적 교육목표에서도 실용적 가치와 교육적 가치는 양립한다. 그러나 이때의 실용적 가치는 단순히 발화자의 의도를 상황에 맞게 표현하는 말하기 차원의 외국어 교육이 아니라, 이 외국어를 통해 사실상 경제활동이 가능한 직업독일어로 활용될 수 있는 쓰임을 말한다. 교육적 가치는 외국어를 배우는 학습자가 자신의 모국어 국가의 문화와 목표어 국가의 문화 사이에서 생겨나는 공통성 및 차이점을 통해 개인의 경험과 세계관을 넓혀줄 수 있는 정신적 교육 가치의 측면을 언급한다. 이러한 교육학적 관점에서 독일어 수업의 의미 있는 주제는 학생의 인생경험을 넓히는데 기여하고, 자기의 인생경험과 접목할 가능성이 있고, 낯선 세계와 자기 세계에 관해 계속 의문을 가져 보도록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외국어는 두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었고, 수업에서는 언어 내용 이외에도 그 언어 내용과 관련된 독일의 문화 상황을 학습하고, 이에 나아가 학습자 자신의 모국어 문화와 비교하는 수업 방식이 선포되었다. 이러한 문화 비교는 학습자의 자기이해에 미치는 효과는 경탄, 평가절하에 의한 무시 또는 거부감과 같은 쇼크까지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학습 주제를 선정할 때는 학습자에게 의미있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학습자의 학습 동기, 연령 및 학습 목표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정해야 한다(Vgl. Neuner: 1993. S. 106-108).

노이너(1993:177)는 특히 목표문화와 거리가 먼 독일어 수업의 교수법과 방법론을 위해 수업 운영에 대한 몇 가지 결론을 제시했다:

- 상호문화적으로 지향된 수업은 목표어 국가의 또래 집단의 대표적인 인생경험 및 학습자 집단의 기본적 인생경험과 연결된 주제로 구성해야 한다.
- 이국 문화는 수업에서 매체를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TV 나 비디오 등과 같은 보기, 듣기 교수 방법, 신문을 통한 읽기 교수 방법과 같이 다양한 매체를 이해할 수 있는 언어 기능을 중심으로 강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때 자국의 교육 문화에 따라 보기, 듣기 및 읽기와 관련된 상황이 어떤지 그 차이점을 인식하여 수업을 구상해야 한다.
- 말하기 능력은 단순히 대화하기에 머무르지 않고, 사실에 대하여 말하기, 설명 및 토론하기와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다.
- 의사소통 중심 수업은 대화모형을 모방에서 표현하는 것에서 출발하지만, 상호문화 수업은 외국어로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의사표현하는 것으로 진행해야 한다.

- 타 문화를 이해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언어 기능은 읽기 교수법이다.
- 읽기의 대상은 단순히 실용텍스트에 머무르지 않고, 해당 국가의 문화가 다양한 층위에서 잘 표현되어 있는 문학작품에 이르기까지 고려해야 한다.
- 상호문화적 독일어 수업의 기본 방향은 자국 문화의 다양한 요소들을 목표 문화의 그것들과 비교하는 것이다. 상호문화 교수법은 한쪽에서 다른 한쪽을 일방적으로 배우고 익히는 것이 아니라, 두 문화를 비교하여 그 세계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다리를 만드는 작업이며, 그 다리를 통해 학습자의 세계관과 경험을 넓혀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이 교육의 궁극적 성과는 보이지 않은 학생들의 내적 과정에 있다. 즉, 낯선 세계에 관한 새로운 텍스트나 사진을 해석해낼 수 있고, 자국 문화를 기본으로 하여 낯선 세계에 대한 이미지를 구축해 보면서, 다시 이 이미지가 새로운 정보로 작용하며 결국 목표어 국가에 관한 최종 판단을 하게 된다. 이때 학습자는 어떤 정보 하나를 얻고 그에 대해 자신의 것으로 최종 확정하는 내적 과정을 갖는다.

이와 같이 노이너(1993)가 제시한 상호문화 수업은 학습자의 문화와 외국어 국가 문화의 내용을 단순히 비교하고 나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고, 비교과정을 통해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사고 과정을 촉진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왜냐하면 학습자 스스로가 학습에 관여하여 정보를 지식화하도록 하는 수업 방법이 필요한 이유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매체의 발달과 세계 통용의 시대를 맞아 국제화 및 세계화에 노출된 학습자들에게 외국어 교육은 더 이상 ‘말하는 의사소통 교육’이 아니라, ‘해당 국가의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을 이해하면서 나의 세계와 타인의 세계를 인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장치’가 되었다. 이러한 시대요구에 따라 외국어 수업은 언어의 4 가지 기능인 듣기, 말하기, 읽기 및 쓰기와 같은 언어 능력을 숙달시키는 연습에 매달리는 언어 중심 수업에서 벗어나서 다문화를 준비하고 국제화를 대비하는 다면적 층위에서 문화 지식을 익혀가는 학습자 중심 외국어 교육으로 그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

4. 핵심역량 기반 외국어교수법의 특징과 수업유형

문화를 다양한 층위에서 학습하면서 외국어를 공부하는 기존 상호문화 교수법은 수업 내용에 있어서는 언어 수업과 문화수업 그리고 두 언어의 비교관점을 강조하는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식 전달형 수업 또는 학생들의 단순 발표수업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21 세기를 맞으면서 다문화 및 국제화를 넘어서 세계화를 추진하게 되고, 이에 따라 모국어와 자국어의 이분법적 구분보다는 더 상위의

개념으로 세계시민 또는 지구인이라는 용어가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맞물려 인터넷과 모바일의 발달로 문화 학습에 존재했던 시공의 차이에 따른 낯설음은 매우 쉽게 극복되는 세상이 되었다. 이러한 시대 흐름에 따라 이제는 넘쳐나는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급진적으로 변하는 시대에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지구에 생기는 다양한 문제는 더 이상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의 문제로 우리가 세계 시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공동 대처하는 협업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목소리이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늘어나고, 교육은 이제 이러한 핵심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이어야만 한다는 국가적 교육목표가 설정되었다. 제 2 외국어 수업도 단순히 목표어 나라 국가를 알고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세계시민 의식으로 함께 살아가는 ‘우리’ 관점에서 세계의 문제에 함께 동참하는 청소년을 교육하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한 교육방안을 위해 고민을 해야 한다. OECD 는 개인의 성공적 삶과 사회의 발전에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규명하기 위해 1997 년부터 2003 년까지 프로젝트(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를 추진하였고, 그 결과 3 개 범주의 9 개 영역으로 핵심역량을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습자의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교수학습 및 교사교육 방안 연구(2011)와 ‘미래 핵심역량 개발을 위한 교과 교육과정 탐색(2013)’이라는 연구 등을 실행했으며,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조화 방안연구’에 관한 보고서를 2013 년에 제출하였다 (참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3-7 연구보고서). 이 보고서에는 핵심역량 범주를 크게 개인 역량, 사회 역량 그리고 지적 역량으로 나눴다. 역량 범주에 따른 세부 역량으로는 개인이 갖출 역량으로 자기관리 능력, 타인에 대한 공감과 배려, 사회적 역량으로는 의사소통능력, 시민의식, 국제사회 문화의 이해 및 대인관계 능력을 꼽았다. 나아가 지적 역량에 있어 창의적 사고 능력, 문제해결 능력, 정보처리 및 활용 능력을 핵심역량으로 선택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라 각 교과 교육과정을 핵심역량 중점으로 개발하면서 미래 사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1 세기의 시대 요구는 핵심역량을 기저로 하여 창의교육, 융합교육, 협업교육, 문제해결 교육, 공감교육 및 인성교육 분야에 관심이 고조되어 있다. 르네상스 시대에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융합형 인재로 모든 분야를 섭렵했듯이, 오늘날은 마치 신르네상스 시대에 도래한 것과 같이, 인간성 회복, 지식의 융합과 협력, 정보 활용 능력, 창의성과 문제 대처 능력 등 매우 다양한 층위에서 학습자가 자신의 재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학습자 스스로가 교육의 중심이 되어 교과의 내용을 선정하고 방법을 구상하며 결론에 이르기까지 교사와 역할이 뒤바뀌는 지점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예가 잘 반영된 수업이 플립 러닝 또는 거꾸로 수업과 같은 유형일 것이다. 이 수업이 큰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수업 후 학생들에게 나타난 영향 평가에

기인한다. 이 수업을 진행하고 보니 학생들의 지적 향상도 및 성적이 매우 향상되었다는 결과를 얻었기 때문인데, 과연 이 수업에서 어떤 요소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보면, 수업의 진행자가 학생이라는 점, 학생이 직접 과정에 개입하여 지식을 쌓아가는 행동하는 수업의 주체자라는 점 그리고 학생들이 현상을 직접 설명하거나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지식을 전달해 주는 공급자 역할을 했다는 점, 이러한 구성 자체가 소속감을 높여 동기 부여 및 책임감을 상승시켰다는 점 등을 요인으로 찾을 수 있다 (참조. KBS 파노라마 거꾸로 교실의 마법, 2014). 이러한 결과는 학습자 중심의 수업으로 전향할 것, 교사는 수업의 지시자이자 주체자가 아니고 조력자 및 보조자로 역할을 바꿀 것, 단순히 암기 위주의 수업이 아니라 과정 중심의 수업으로 전환할 것 등 교육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그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직 교사들은 교실 수업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야기되는 문제해결 능력을 길러 학습자 중심의 수업이 되도록 수업을 직접 구상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III. 핵심역량 기반 협업 수업의 운영과 실제

지금까지는 외국어교수법이 시대요구에 따라 교육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면서 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오늘날은 사회 변화 및 매체 발달 그리고 핵심역량기반 강조 분위기가 맞물려 실제 이를 반영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교사들의 고민이 깊다. 과정중심 학습 및 문제기반 학습을 수행하기 위해 학생들이 학습의 주체가 되려면, 매체를 잘 갖춘 교실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수업의 운영 형태도 바뀌어야 한다. 21 세기는 정보화 시대이자 지식기반 사회로 발전하면서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 핵심역량의 하나가 되었고, 교사는 수업을 통해 학습자가 정보 지식을 얻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새로운 내용을 학습하는 과정에 참여하도록 수업을 진행해야한다. 이러한 교육 의도를 실행하는데 적합한 외국어 수업 유형으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수업법 중 하나가 바로 문제기반 학습법(das problembasierte Lernen)이다. 지식기반 사회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과연 어떤 정보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선별하고 그로부터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또한 같은 정보의 가치나 구성 요소를 통해서도 목적에 부합한 가치를 뽑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변화 추진의 원동력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지식기반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이다. 우리는 더 이상 지식전달이 목적인 사회에 살고 있지 않고, 획일화된 과정 속에서 동일한 결과를 얻어야만 하는 사회에 귀속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우리는 지식기반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인간의 창의력과 정보 활용 능력 및 창출

능력을 기반으로 당면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 중심 교육을 실행해야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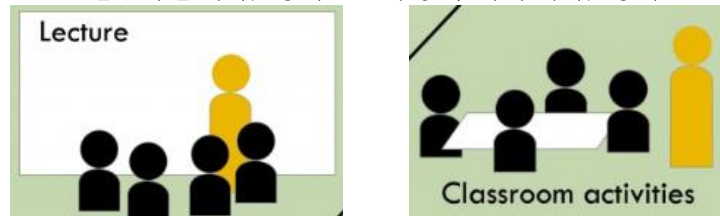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협동수업을 통해 어떤 목표를 이루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업을 구상할 수 있다. 협동수업은 교육 목표에 따라 크게 프로젝트기반 학습(Projektbasiertes Lernen)과 문제기반 학습 프로젝트(Problembasiertes Lernprojekt)으로 나눌 수 있다. 프로젝트기반 학습과 문제기반 학습프로젝트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프로젝트기반 학습은 어떤 내용을 탐색하고 파악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연구할 목적으로 팀을 꾸려 계획하고 시행하는 것이며, 문제기반 학습프로젝트는 주어진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하고 그 방안에 협업하여 해결책과 결과를 도출하는 것(참조. 이현정 외, 2017:16)으로 간략히 구분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프로젝트기반 학습과 문제기반학습 프로젝트 수업으로 나눠 각 수업이 어떻게 진행 될 수 있는지, 수업 운영의 기술과 운영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과정 참여 중심의 프로젝트 기반 협동수업의 운영

프로젝트 수업은 연구주제 설정 단계에서부터 학생들이 참여하여 그 주제를 선정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정보를 수집하거나 정리하면서 주제를 학습자 스스로가 알아가는 과정적 수업이다. 따라서 학생이 주체가 되고, 교사는 조력자가 되어 연구의 범위에 대해 함께 논의해주고, 정보를 탐색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상담을 해 주며, 결과에 대한 평가 및 종합 토의 등을 진행하게 된다. 이 내용 속에 교사의 고유 업무로 생각되었던 ‘지식의 전달’이라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전통적인 수업에서의 교사·학생의 위치와 활동 수업에서의 교사·학생의 위치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그 특징을 대조해 볼 수 있다(참조. 구글 플립러닝 이미지).

그림 3

전통적인 수업 방식 vs 학생 참여적 수업 방식



프로젝트 수업은 학생의 자기주도적 수업이자, 지식의 획득 과정에 또래 친구 및 공동 관심자가 함께 구상하는 협동수업이다. 이러한 수업 유형은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 중 ‘창의력’, ‘의사소통능력’, ‘정보처리능력’, ‘기초학습능력’, ‘대인관계 능력’ 및 ‘자기관리능력’ 까지 최소 6 가지의 핵심역량이 기본적으로 전제된다는 점에서 지식기반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교육에 적합한 수업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다.

프로젝트 학습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알고 싶은 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계획을 세워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정은 일반적으로 계획단계-> 실행단계-> 결과단계의 순으로 진행된다. 계획단계에서는 주제선정, 관련자료 찾기, 자료수집 및 자료의 조직화 활동을 한다. 실행단계에서는 아이디어를 교환하거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 또는 실험을 해보거나 탐방을 해 보는 등 구체적인 수행 활동을 한다. 결과처리 단계에서는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정리하고, 결과를 도출하면서 자신의 조에서 얻은 결과를 발표할 준비를 한다(참조. 김선경 역, 2017).

프로젝트 수업은 학생들이 협동하여 얻은 결과를 PPT 로 만들어 발표를 하거나 전시 등의 활동을 해야한다는 특징이 있고, 교사 및 다른 조의 학생은 이 발표 내용에 대해 평가를 하면서 지식을 공유하게 된다. 이러한 프로젝트 학습은 자발적으로 주제를 선정했기 때문에 학습 동기가 높으며, 체계적인 사고 능력, 책임감, 독창성, 유연성 및 적극적인 참여의식 등을 높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가치를 찾을 수 있다(참조. 김경원 외, 2012).

프로젝트기반 학습에 대한 이러한 정의에 맞춰 실제 독일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지 예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프로젝트기반 학습의 운영 방안에 대해 소개해 보고자 한다. 이 수업은 독어교육 전공 3 학년 학생들과 독일어 모의수업을 진행하면서 실제 활용한 사례의 일부이다.

1. **학습 상황)** 독일어 1 의 교과서에는 독일의 수업, 교육제도 그리고 직업과 관련된 문화요소가 제공되고 있다. 교과서에는 매우 기초적인 정보만을 공급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독일의 교육제도가 한국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대학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과 원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다른 교육을 받는지, 예컨대 Meistebrief 라는 것은 무엇인지 등 i)교육제도의 차이점, ii) 학교 선택 방법, 그리고 iii)주제와 연관된 전문 용어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졌다. 이렇게 관심 영역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계획을 세워 프로젝트기반 학습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주제에 따른 학생들의 관심을 기준으로 조를 형성하여 수업을 운영한다.

2. **계획 단계)** 각 그룹은 알고 싶은 주제를 선정하여 정보를 찾고 자료를 조직화하는 활동을 한다. 예를들어, 그룹 1 은 독일의 교육제도와 한국의 교육제도 간의 차이점을, 그룹 2 는 어떤 학교를 어떤 방법으로 선택해야 하는지를, 그룹 3 은 교육 영역에서 나오는 학교 이름이나 전문 용어에 대해서 정보를 찾기 위해 팀원들이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를 구상하고 역할을 분담한다.
3. **실행 단계)** 팀별로 짠 계획을 실제 수행한다. 그룹 1 은 인터넷 검색으로 한국 교육제도 특징과 독일 교육제도 특징, 첫 학교에 입학하는 나이, 수학기간, 대학에 입학하는 법 등을 팀 작업하고, 그룹 2 는 학교 선택법을 알아 보기 위해 팀원들은 각자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지, 또는 주위 친구들이 원하는 직업의 순위를 정해 놓고, 그 분야의 직업인이 되려면 어떤 교육기관을 다녀야 하는지를 직업별로 접근하여 정보수집 작업을 수행한다. 그룹 3 은 대학입학시험 Abitur, Zeugnis, Meister, Meisterbrief 와 같은 용어가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 사용하고, 이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용어와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서의 교육적 의미를 탐색해 본다.
4. **결과 단계)** 팀별로 취합된 정보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 결론은 발표 및 전시와 같은 형태로 다른 팀과 지식을 나누고, 토의하면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준비 작업을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자신의 팀의 결론을 가장 잘 부각시킬 수 있는 그룹명을 스스로 작명하게 한다. 학생들은 PPT 자료를 만들고, 발표 준비를 위한 협업 작업을 시행한다. 실제 이 주제로 수업을 시행했을 때,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조의 이름을 만든 사례는 다음과 같다:

팀 이름 정하기

1. **파인애플**
(프로젝트하면 애플회사가 떠오르고, 애플보다 더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 것)
2. **no 답**
(우리에겐 답이 없다.답은 우리가 만드는 것)
3. **마징가젝트**
(마징가 제트 + 프로젝트)

5. 발표 단계) 지금까지의 과정에서는 학습자들이 모든 과정을 준비하여 운영하고, 교사는 이 모든 단계를 조력, 관찰하고 또는 상담을 해준다. 그러나 평가 단계에서는 교사가 각 팀의 발표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율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발표 사례: 1 조 ‘파인애플 팀’은 차이점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발표를 하면서 같은 또래 청소년이 교육제도에 따라 얼마나 다른 환경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했다. 먼저 우리의 시간표와 독일학생의 시간표 비교, 어떤 교과를 배우는지 우리에게 없는 과목과 우리만 있는 과목 찾기, 등학교 시간의 비교와 하루 시간을 보내는 방법의 비교, 한국의 교육제도와 독일의 교육제도의 비교와 같이 비교 관점에서 다양한 정보를 도표로 만들어서 발표하면서 독일의 학교는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자세히 소개하였다.

발표 사례: 2 조 ‘no 답 팀’은 팀의 이름처럼 답은 우리가 만든다는 관점에서 각자 원하는 직업을 위해 누구나 다 가는 대학만이 정답이 아니고 우리는 다양한 길을 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발표를 진행하면서 장래의 희망에 맞게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한 생각에 대해 토론의 장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단순히 직업과 관련된 학교의 운영 정보뿐만 아니라,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문제까지 생각을 넓혀 볼 수 있게 하였다.

발표 사례: 3 조 ‘마징가젝트 팀’은 딱딱해 보이는 용어와 개념인 Abitur, Zeugnis, Meister, Meisterbrief 를 알아보면서 이 과정에서 이 용어와 관련된 상황 속에서 정보가치가 있는 내용을 선정하여 독일의 대학 입학제도는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의 문제, 전문가의 의미와 자부심과 같은 사회 현상과 인식 문제까지를 다루어 발표하였다.

6. 평가 단계) 각 팀의 발표가 끝나고, 공동 토론 시간을 통해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점은 무엇인지, 자신의 미래 직업을 위한 고민은 무엇인지에 대한 토론 및 직업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에 대한 논의 등을 거치면서 자유롭게 수업 내용을 자신의 경험 세계와 접목시켜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한다. 교사는 전체 수업을 위한 평가표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데, 이때는 다른 그룹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평가표와 자기 그룹과 자신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자기평가표를 함께 공급하여 개인적 역량과 사회적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교육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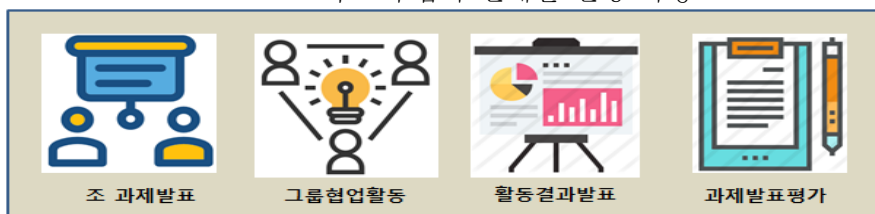
이와 같이 독일어 수업 중에 프로젝트기반 협동학습을 진행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수업은 단순히 독일어권 문화에 대한 지식 공급 차원의 교원을 넘어서 학습자가 개인적으로 갖출 역량인 창의력, 자기관리 능력, 타인에 대한 공감과 배려, 사회적 역량으로는 의사소통 능력 및 대인관계 능력을 기를 수 있다.

2. 문제기반 학습 프로젝트 수업의 운영

문제기반 학습은 일명 문제해결학습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문제기반 학습 프로젝트 수업은 앞에서 예로 들었던 프로젝트형 수업과는 달리, 학생들이 주제를 자유롭게 선택하지 않는다. 학생들에게는 특정 문제가 주어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으로 그룹을 형성하여 해결책을 찾아가야 한다. 이 수업은 새로운 지식이나 능력 및 태도를 습득하는 체계적인 지식 교육보다는 ‘반성적 사고’를 위한 교육 효과에 더 적합하다(참고. 조규락 역, 2009). 따라서 문제에 등장하는 상황 및 주인공의 처지를 파악하게 되고, 문제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을 정리하거나 무엇을 더 알아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등 반성적 사고를 기반으로 문제해결 과정을 처리하게 된다. 이 수업은 문제파악단계-> 과제수행단계->결과발표 및 평가 단계로 진행할 수 있다. 문제를 파악하여 과제수행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과제 수행 단계에서는 문제 해결안을 모색하고, 팀별로 수집된 자료를 모아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 준비를 제작한다. 결과발표단계에서는 팀별로 발표를 진행하고, 이에 대해서 역시 평가 단계를 반드시 거친다:

그림 4

프로젝트 수업의 단계별 진행 과정



이 절차에서 알 수 있듯이 프로젝트형 수업과 문제기반학습 프로젝트 수업의 차이는 동일해 보이지만, 팀이 발표할 과제를 책정하는 출발점이 다르다. 즉, 1 단계인 조 과제발표를 위해 관심 중심의 주제를 선정하는 활동을 하는지 또는 선정된 사례에 대한 문제상황을 파악하는 단계를 거쳐야 하는지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 이후의 수업 진행은 그룹의 협업을 거쳐

정보를 탐색하고 모아서 결과를 도출하는 것과 결과를 함께 공유하면서 상호 평가를 거쳐 교육적 가치를 완성하는 과정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따라서 문제기반학습 프로젝트 수업은 처음 1 단계-문제를 수업에 끌어오는 ‘문제제기’ 부분에 초점을 맞춰 수업 사례를 소개해 보고, 이 수업을 실제 모의수업으로 진행했던 발표학생들이 프로젝트형 수업을 진행해 본 후, 이 수업유형에 대해 평가한 내용을 바탕으로 2 가지의 프로젝트형 수업에 대한 의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문제제기 사례 1)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이 수중 생물들의 몸 속에 쌓이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환경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남해안에서도 조사를 해봤는데, 잡은 해산물 대부분에서 이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습니다. 해양 미세 플라스틱의 환경위해성 연구 보고서입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은 지난해 경남 거제와 마산 일대의 양식장과 근해에서 굴과 담치, 게, 갯지렁이를 잡아 분석했습니다. 이 가운데 97%인 135 개 개체의 몸속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됐습니다. 조사 대상 대부분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 건데 많을 경우 한 개체에서 61 개 입자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잘게 부서진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생물의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 인체에 대한 영향 분석이 시급히 필요하고 미세 플라스틱의 환경 오염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JTBC 2017. 10. 12 자 뉴스 기사)

학생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지문 전체에서 어떤 문제점을 꺼낼 수 있는지 전체 토의를 거쳐, 해결해야 할 문제와 이 문제에 따라 우리가 알아봐야 할 내용을 나열하였다. 그리고 추려진 몇 가지 문제를 놓고 원하는 주제를 선택하여 학생들은 조를 만들었다. 이 사례에서는 i) 미세 플라스틱이란 무엇인가? ii) 일상에서 우리는 미세 플라스틱 오염 물질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 iii) 현재 바다 오염 상태는 어떠한가? 바다 오염의 주범은 무엇이며, 바다 속 쓰레기는 얼마나 오랫동안 바다 속에 머무르는가? iv) 한국의 환경 오염 및 수질 보호를 위해 우리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4 가지 문제를 규명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따라 조를 편성하여 각 조별로 정보를 찾고 알아보는 과정을 거쳤다. 이 이후의 과정은 과제수행단계 -> 정리단계 -> 발표 및 평가단계로 진행되었다.

문제제기 사례 2)

‘비정상회담’ 다니엘이 독일 무개념 관광객 사례를 소개했다. 이날 다니엘은 “어떤 독일 청년이 시드니 근처 바닷가를 걷다가 갈매기를 발로 찼다. 그냥 스트레스를 풀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차인 갈매기가 스트레스로 즉사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다니엘은 “그 청년은 동물학대 혐의로 체포됐고 521 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호주 블레어는 “프랑스 관광객이 호주에 와서 퀴카라는 동물을 잡아 불태웠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되었다”며 또 다른 사례를 전했다 (비정상회담 2015. 6. 8. 방송 내용 중 일부)

동물학대와 관련하여 학생들은 길고양이를 의도적으로 살해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것만이 학대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무심코 사람들이 저지르는 일도 학대가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동물학대에 관한 우리들의 반성적 사고를 길러보기 위한 의도로 이 방송의 내용을 선택하여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이 문제를 기반으로 학생들은 탐구 주제별 조를 구성하여 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발표 단계에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각자의 조가 수행할 과제를 발표한 후 협업을 통해 탐구활동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구상하였다. 이 사례의 경우는 평가 단계에서 각 조에서 인식한 문제를 기반으로 사람들로 부터 동물학대를 막기 위함 캠페인 활동을 하자는 의견이 수렴되었고, 이에 따라 동물 학대에 가장 효과적인 ‘포스터’ 찾기 대회를 열었고, 그 포스터의 호응도에 따라 베스트 작품을 선정하는 활동 평가를 하였다.

지금까지 문제기반 학습 프로젝트 수업의 운영 사례를 통해 살펴 보았듯이, 수업은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제기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책을 제안하게 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실제 2 가지 유형의 프로젝트형 모의수업을 진행해 본 전공학생들의 평가 및 소감을 바탕으로 프로젝트형 수업의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프로젝트 수업은 교사중심 지식 수업보다 교사가 더 철저히 수업 준비를 해야 한다.
- 교과외 범위에 합당한 주제를 찾아서 독일어 언어 수업의 학습 내용과 연계된 주제를 찾아 프로젝트 활동을 구상하는 단계에서 일반 문법 및 회화수업을 준비하는 것 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 수업시간에 다룬 특정 주제에 관한 정보의 양은 교사중심으로 전달된 경우보다 오히려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각 그룹이 조사하여 발표하는 방식은 주제를 매우 심도있게 다룰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특정 주제에 대한 전문성이 강화된다.
- 각 그룹이 조사할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각 조의 학습자들이 각자의 할 일을 체계적으로 계획할 때 교사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하다.
- 모두 수업에 참여하게끔 진행되기 때문에 수업 시간의 분위기가 활발하다.
- 인터넷 시설을 갖춘 교실 또는 핸드폰과 같이 검색을 쉽게할 수 있는 학습 상황이 필요하다.
- 각 조가 발표를 할 때 어느 정도의 경쟁이 필요하다.
- 결과발표가 단순히 ppt 를 활용한 구두 발표에만 치중되지 않도록, 발표의 방식을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활동이 포함된 발표가 더 효과적이다.
- 프로젝트 협업 수업은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핵심역량 중 특히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 창의성, 문제해결 능력, 대인관계 능력, 문제해결능력 및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내는데 매우 적합한 수업유형이다.

IV. 나가는 말

교육의 현장에서는 21 세기 시대요구와 사회변화로 살아있는 지식을 배울 수 있는 학생중심 수업방식에 대한 관심의 고조, 매체의 발달로 인한 정보검색 능력의 향상, 융합 시대의 도래로 인한 협업의 강조가 대세를 이루며 교실혁명이 일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단순히 지식형 교육으로는 미래인재를 길러내기 어렵기 때문에 다변사회를 살아나가기에 필요한 핵심역량 교육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맞는 교육은 어떤 것인지 외국어 교수법은 어떤 출구를 모색해야 하는지를 논의해 보아야 한다. 과거 전통적 교수법에서 부터 외국어 교육은 시대의 요구와 사회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 문법번역식에서부터 상호문화교수법까지 교수방법의 변천을 살펴보면 시대의 변화를 외면하지 않고, 시대의 흐름에 맞춰 시의적절한 교육을 제공해 온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변천의 배경과 특징을 이해해 보면, 분명 지금은 또 한번 새롭게 외국어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하는 시기이며, 그 방법 중의 하나로 프로젝트형 학습이 적절해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프로젝트형 수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다양한 외국어 교수법의 흐름을 살펴 보면서 시대요구에 맞게 교수법을 전환한다는 것의 당위성을 짚어 보았고, 이에 적절한 교수방법이 프로젝트형 교육이라면, 과연 프로젝트형 독일어 수업은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기 위해, 현재 통용되고 있는 독일어 교과서로 모의수업을 실행해보면서 프로젝트형 독일어 수업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다. 이번 모의수업은 8 명의 학생이

참여해 한 학기 동안 이 수업에 대한 연구과정을 거쳤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수업 형태의 모의수업을 실행해보면서 프로젝트수업의 진행방식 메뉴얼을 보강해가고자 한다. 오늘날의 시대요구를 담고 있는 용어가 ‘학습자 중심’, ‘과정중심’, ‘문제해결’, ‘핵심역량’ 그리고 ‘협업’이라면, 이 시대요구에 맞는 수업모델의 하나가 프로젝트형 수업임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Heyd, Gertraude (1991). *Deutsch lehren*. Grundwissen für den Unterricht in Deutsch als Fremdsprache. Moritz Diesterweg, Frankfurt am Main.
- Neuner, G u.a.(1993). *Methoden des fremdsprachlichen Deutschunterrichts. Eine Einführung*. Langenscheidet, München.
- Raith, J.(1967). *Der Englischunterricht, Teil I: Grundfragen*, München.
- 김경원 외 (2012). *행복한 가르침과 배움이 있는 리얼 프로젝트 학습: 교사 학생 학부모를 위한 프로젝트 학습 가이드*, 상상채널
- 이근호 외 (2013). *미래 핵심역량 계발을 위한 교과 교육과정 탐색*,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현정 외 (2017). *프로젝트 수업. 배움을 디자인하다*, 행복한 미래
- 박현선 (2016). *다문화 핵심역량 기반 독일어 문화수업의 고찰*, *서울대학교 외국어교육*, S. 73-95
- 조규락 역 (2009). *문제해결 학습* (교수설계 사이트), 학지사
- 최선경 역 (2017). *프로젝트 수업 어떻게 할 것인가? 철학에서 실천까지, 교사들을 위한 PBL의 모든 것*, 지식프레임
- 최승현 외 (2011). *학습자의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교수학습 및 교사교육 방안 연구*, 교과별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 토론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인터넷 사이트 참고

<https://books.google.co.kr/books?isbn=3647701513>

https://de.wikipedia.org/wiki/Problembasiertes_Lernen

<https://www.flaticon.com>

<https://www.google.co.kr/search?q=flipped+learning&hl=ko&rls=com.microsoft:ko-KR:IE>

https://www.haf1.bfh.ch/fileadmin/docs/Studium/BScAgronomie/Was_ist_PBL_de.pdf

www.youtube.com. KBS 파노라마 거꾸로 교실의 마법

박현선

한국교원대학교 제 2 대학 독어교육과

363-791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탑연로 250

Tel: (043) 230-3555

H.P.: 010-6607-8400

Email: sunpark@knue.ac.kr

Received on 8 December 2017

Reviewed on 14 December 2017

Revised version received on 18 December 2017

Accepted on 22 December 2017